

## 말씀의 유익

성경말씀: 딤후3:16-17

1611년 5월 2일, 20년 이상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사역, 긍정적인 변화

지식이 넘치므로 교만하게 되어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봄

릭크맨(극단적 세대주의) 영향: 안하무인, 상스러운 욕, 상식과 이성의 마비(명백한 것 부인)

교회 안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외치며 무질서, 혼동, 다툼, 파당 형성, 시간이 지나도 무성숙  
관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따라오지 못함: 스키쵸프레니아, 남에게만 적용, 나는 제외

약3:13의 교훈: 지식과 지혜를 둘 다 갖추고 선한 생활의 열매를 내야 한다. 약2:26의 경고

이 진영에는 지식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데 지혜 즉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많지 않다.

성도들을 이끄는 책무를 지닌 목사로서 판단해 볼 때 이런 현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딤후4:15의 권면: 권면, 교리 등을 묵상하고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아더 핑크의 <말씀의 유익>이라는 책의 첫 장을 거의 그대로 설교하려고 한다.

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는가? 신학원 공부를 하는 이유

성경을 들이파는 목적이 바로 서야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 침례성도와 성경

우리 침례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했지만 별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보다 더한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성경 공부가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예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혜/공활을 남용(함부로 씌)할 수 있고 오용(잘못 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에도 이런 남용과 오용이 있고 이런 것은 열매를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육신에 속한 사람도 과학을 연구하듯 큰 열정과 기쁨을 갖고 성경 연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자만심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머리만 커지는 경우입니다. 흥미 있는 실험에 열중하는 화학/생물학자처럼 단지 지식 습득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희열을 느끼며 자만하게 됩니다. 어찌나 성경을 들고 파는지 남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수천 년의 시간이 있다고 하고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수십억 년이 들어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들의 성경책은 각종 컬러 펜, 노트, 도표 등으로 너털거립니다.

이런 데 빠지기 시작하면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어 자기도취에 빠져 성경을 해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이 일만 합니다. 개구리 해부하듯이 철저히 성경을 조각조각 내어 해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 습득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화학자/해부자가 지식 취득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화학자가 성공하면 자만에 빠져 자기보다 무지한 사람들을 멸시하기 쉽듯이 성경 속의 숫자나 예표나 예언이나 그 밖의 다른 주제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성경 해부 끝에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져 '믿음+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 교리

성경을 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학적 탐구욕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2)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교육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할까 두려워서 단순히 성경의 일반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3) 또 다른 이들은 자기 교단의 특성을 보여 주는 구절들을 외우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 특정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들만을 열심히 찾아 읽고 있습니다. (4) 또 다른 이들은 자기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공박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5) 그러나 이 같은 태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외우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로 잡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 성경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모든 선한 일(행위)에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유익을 얻은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딤후4:15). 가정, 교회, 일터, 국가를 세워야 함.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 교회, 일터, 국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암송/연구의 목적입니다.

철수와 영희의 배드민턴, 공이 지붕 위에 올라감

사다리(지식), 협력해서 공을 가져다가 다시 배드민턴을 칩, 지혜로운 사람

이제 어떻게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의 첫째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먼저 우리가 타락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요, 사악한 존재임을 알려 줍니다. 우리의 도덕 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 역시 전혀 나무랄 데 없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과 양심 속에 말씀을 적용하시 죄로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및 태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대언자 이사야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적용하실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 속에 죄가 이루어 놓은 황폐한 자취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일은 회심한 이후에만 잠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복을 내리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기준 즉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라”(벧전1:15)라는 기준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실패한 것을 대할 때에 나도 저들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완전한 삶을 대할 때에 그분에 비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가?”

고린도후서 강해, 야고보서 강해 등을 하면서 내 자신의 죄성을 보며 더욱 더 회개하게 된다.

2.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슬퍼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말씀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찢렸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의 웅변 능력과 지적 기교를 보여 주는 화려한 설교나 세대주의 혹은 종말론 등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런 것들은 양심을 꿰뚫는 침투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설교에 수긍은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거나 혹은 그분께 가까이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비참하게 실패했음을 보여 주며, 이런 실패를 통해 성도들이 성격과 행동을 고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지적하며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하며 슬피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므로 오히려 이런 설교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홀로 읽을 때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여러분은 과연 이 같은 체험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죄를 깨달아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 받기 전에 먼저 애통해야 하며(마5:4) 높임을 받기 전에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벧전5:5).

### 3.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말씀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책망’하기에 유익하므로 정직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게 됩니다(딤후 3:16). 이 세상 사람의 특징: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니라”(요3:20).

반면에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눅17장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이렇게 행합니다.

오 하나님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마음 한가운데 죄를 숨기고 있으면 결코 어떤 영적 성장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며(시1:3) 오직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백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맞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고백하지 않은 죄로 눌러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진정한 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고백을 들어 봅시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며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시 32:5).

### 4.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심히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피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고 그 속에 계속 머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심히 미워해야 합니다.”

회심했다고 고백한 후에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원칙을 마음에 세웠으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모두 미워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보기 바랍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시119:104).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짓된 길을 단지 삼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하며, 몇 가지 거짓된 길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 하고, 단순히 피상적으로 모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된 길’ 즉 자기가 행하는 모든 나쁜 것을 미워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 5.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죄를 버리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딤후2:19).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생활도 그 말씀에 더욱 더 부합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삶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걷는 일’(요삼 4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끝 부분에는 자기 자신을 불신자들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몇 가지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고후6:16-18).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7:1). 그분께서는 “이 약속들을 가진 자들아, 이제 위로를 받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약속들을 가진 너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119:9,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전6:18),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전10:14),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딤후 6:11),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딤후2:22),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위의 말씀들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잠28:13). 이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사실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을 내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0.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가?

1. 그 결과 나의 성경 공부/암송/연구가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는가? 혹시라도 지식을 얻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지는 않았는가?
2. 성경 공부가 나 자신을 주변의 친구들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 결국 사람의 존경을 받게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더 겸손하게 만들었는가?
3. 성경 공부가 자신의 죄성을 미워하는 마음을 유발시켰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주었는가?
4. 내가 교제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저 선생님/목사님/형제님이나 친구에게 주셨던 믿음과 은혜와 거룩함을 내게 주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는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여러 반응: 어떤 사람의 고백인 진실한가?  
“목사님, 제 삶이 변했습니다. 남편, 아내의 삶이 변했습니다.”

신학원 학생들 부탁

이 고백이 없으면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성화되어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요14:15).

진리를 받아들여 죄를 미워하고 죄와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일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좀 더 나은 남편, 아내, 자녀가 되게 하고 이로써 좀 더 행복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